



정교회주보

제2457호

2024.01.28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4> 힐란다리우 수도원(사진)은 아토스 성산 북동쪽 지역에 1198년 세르비아의 성 사바에 의해 설립되었다. 높이 30m, 길이 140m, 폭 75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외관을 갖추고 있는데, 과거에 잦은 해적 습격에 방어하기 위해 이런 모습을 갖췄다. 성모 안식 성당을 비롯한 많은 성당이 있으며, 도서관에는 수많은 원본 문서와 이콘, 벽화가 보존되어 있다.



루가 제 15 주일
성 에프렘 시리아의 수도자
성 하리스 순교자
(제1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81
 - 수도자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164
 - 사도경 : 디모테오 전 4,9~15 (봉)396
 - 복음경 : 루가 19,1~10 13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내 영혼 안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오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 이름의 긴 목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긴 목록 안에는 살인자도 있고, 간음한 자도 있고, 근친상간자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태어나신다면, 예수님은 산더미 같은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통과하여 내 안에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잘못들을, 하나하나 넘어서면서 관통하고 그분의 길을 터서 나가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족보입니다. 이 관통 안에서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연민이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빛납니다.

'예수' 중에서

한국 대주교 2024년 사목 지침서

(지난 주에 이어서)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시로 살펴본 성서와 교부들의 풍부한 가르침을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거룩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주님의 말씀이 속히 퍼져서 찬양받도록”(데살로니키 후 3,1)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다른 사람에게 선교할 때 필요한 필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최우선 관심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영적인 투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매일의 투쟁,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갈라디아 4,19) 계속되는 투쟁,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2.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과 모범으로써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무미건조한 말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론적 신념이 그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남들에게 자신은 마약에 반대하며 모두 마약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에 관해 알려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먼저 변모되지 않았으면서, 다른이더러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모를 위해 투쟁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혜롭게 된 다음,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

른 사람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과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거룩해집시다. 다른 이의 손을 잡아 인도하고, 진지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조언합시다.”(그레고리오 신학자, 폰토스로 떠난 것에 대한 설명, 설교 2, 71, EPE 1:164)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우리가 어떻게 모범으로써 다른 이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아주 아름다운 실제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 친절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욕했습니까? 당신은 이에 대해선 침묵하도록 하고, 할 수 있다면 그를 칭찬하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고, 선함과 온유함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신체적 상처보다 언어적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상처는 육체가 받는 것이지만, 언어적 상처는 영혼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받지 맙시다. 아니면 상처받더라도 중요하지 말고 인내심을 보입시다.”(크리소스토모스, 사도행전에 관하여, 설교 31, EPE 16A:230)

3. 행동과 모범을 통해 증언을 전한 후에는 말로서 증언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즉 행동으로서 보이는 모습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할 수 있는 선교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말로서 하는 선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식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체계적인 교리교육을, 이 거룩한 사업을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말씀의 증언’이라는 용어는 체계적인 교리교육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용기있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교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교회에 관해 신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서, 정교회 서적, 또는 이와 관련된 발간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분별력 있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이 ‘비옥한 밭’이라면 그를 정교회 신앙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나 지인을 우리 성당으로

초대하여 예배나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오는 분들이 낯설지 않게 느끼도록, 그분들께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과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일에는 특별한 신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4. 우리가 하는 정교회 증언은 분명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제일 먼저 향해야 합니다. 즉,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벌써 믿음을 버린 사람이고 비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디모테오 전 5,8)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우리가 사도 바울로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바울로 사도가 의미하는 것은 영혼과 신체에 관한 모든 염려와 보살핌을 뜻합니다. ... 누군가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들을 신경쓰지 않고, 영적인 관계로 연결된 자들도 등한히 여기면서, 어찌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낯선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면서 자기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참으로 헛된 일이라고 모두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해 가르치면서, 친척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친척들이야말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유익함을 더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러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간과하니 박애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해도 과연 틀린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크리소스토모스, 디모테오 전서에 관하여, EΠΕ 23:352)

5. 우리 가족과 친척 다음으로 선교적 관심을 보여야 할 사람은 이웃이어야 합니다. 이웃은 우리와 같은 지역에 살면서 누구보다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의 구원에 대해 신경쓰고 돌봄으로써 그들에게 사랑

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집 주변과 각 성당 주변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 주 성당 주변에는 새로운 이웃들이 많고, 서울과 인천 성당에도 앞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선교지가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교회 신앙을 전파한다고 할 때, 그들을 개종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교회에서는 결코 개종을 선교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방법이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향할 따름입니다.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전한 복음적 초대 “와서 보십시오.”(요한 1,46)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마태오 28,19)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에 옮겨서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선교 대상은, 가족이든 아니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정교인 부모, 조부모, 대부모, 친척들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은, 교실이나 강의실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들의 그리스도교적 행동과 모범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언젠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데려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힘이 있고 가장 효율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 구원에 대해 큰 사랑과 선교적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세상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토스 성산의 실루아노스 성인은 온 세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4면에서 계속)

주간 예배 안내

* 1월 30일(화)

성 대 바실리오스 대주교,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총대주교
3대 교부 축일

* 2월 2일(금)

주 예수 그리스도 입당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출국

지난 23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 주교회의 참석과 그리스에서의 강연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귀국은 2월 7일입니다.

■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지난 18일, 서울 예담교회에서 열린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에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3면에 이어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모든 백성이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가 총만하신지 알게 하소서.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평화를 누리고 당신 얼굴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에서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당신께서 어떤 놀라운 삶을 선사해 주시는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당신께 간청하나니,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모든 백성이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교회 밖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확장되어 있고 또 그 온도가 뜨겁고 열렬하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

소 식

■ 제20회 대교구 의회

2024년도 대교구 의회가 지난 주일(21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올해 사목 지침이 발표되었고, 2부에서는 대교구 및 각 성당의 2023년 영적 사업 및 재정 결산, 2024년 영적 사업 계획 및 재정 예산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가평 수도원, 슬라브 신자 방문

지난 주일(21일), 로만 신부와 슬라브 신자 약 35명이 방문하여 성찬예배, 소티리오스 대주교 묘소 추도식, 수도원 아래 개울에서 신현 축일 성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또한 수도원 안팎 청소와 정리 봉사를 하고 귀가했습니다.

■ 가평 수도원, 故 마리아 봉사자 2주기 추도식 거행

지난 17일, 성찬예배에 이어 마리아 스삐로뿔루 봉사자의 안식 2주기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국 정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해주신 고인이 영원히 기억되길 기원합니다.

■ 가평 수도원, 인천 성당 신자 방문

지난 18일, 인천 성 바울로 성당에서 부인회 및 장년회 5명이 방문하여 '성모님께 드리는 기원의식'을 드리고, 영적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 교회 때도 기적을 행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줄기차게 퍼져 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던 (사도행전 19,20)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국 정교회 대교구와 일본 엑사르히아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우리 모두가 교회법적으로 설정된 관할권 내에서 정교회 증언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에만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당들 주변에 조성되는 새로운 환경들은 도전이며, 동시에 새로운 이웃 선교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한 말을 항상 기억합시다. “태양이 온 땅을 지켜보는 것처럼 설교도 모든 곳에 퍼져야 합니다.”(크리소스토모스, 유대인에 대한 비판, 말씀 5, EΠΕ 34: 288). 아멘